



송혜진 교수

열화당/A4/432면/120,000원



# 민족 고유의 심미의식 밝힌 '현대판 악학궤범'

《한국악기》 펴낸 송혜진 교수

송혜진 교수가 펴낸 《한국악기》는 2년여의 각고 끝에 탄생한 역저다. 65종의 국악기 각각에 대한 연주법과 역사, 제작법 등을 원색사진과 함께 담은 이 책은 '현대판 악학궤범'이다. 송교수는 이 책에서 국악기가 국악을 연주하는 도구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미의식의 결정체라고 말한다.

16세기 이후 국악기를 말할 때 《악학궤범》을 비켜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61종의 국악기에 대한 설명과 세밀한 도해, 제작방법과 연주방법 등을 서술한 《악학궤범》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후에 출간된 국악기에 관한 모든 책을 단지 《악학궤범》의 인용이나 주석으로 전락시켰다. 이 점은 《한국악기》(열화당)를 펴낸 송혜진 교수(41,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도 인정한다.

## 악기와 문화의 상관관계 추적해

“《악학궤범》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국악기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학궤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을수록 오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던가요. 16세기 이후 변화된 악기의 양상을 추적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일반인을 위한 국악기 입문서를 내고 싶은 생각도 있어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이 책은 송교수가 2년여에 걸친 각고 끝에 탄생시킨 역저다. 65중에 이르는 우리 국악기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뉘어 연주법과 역사, 미적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대판 악학궤범’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또한 악기의 전승을 보여주는 도판과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찍은 강운구의 사진은 이 책의 도감적 성격을 유감 없이 보여준다.

악기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추적하고 있는 이 책은 ‘왜 사람들은 이런 악기를 만들어 연주했

던 것일까’ 하는 단순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송교수는 국악기가 “단순히 국악을 연주하는 도구만이 아닌, 한국인의

마음을 소리로 표현한 매체이자 우리의 고유한 심미의식의 결정체”라고 강조한다.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에 대한 ‘사실적 기술’과 그 악기가 입고 있는 ‘문화의 옷’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면, 국악기가 한국 문화를 배우는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국악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한국학 교재’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를 위해 송교수가 인용한 자료는 방대하다. 악기를 기록한 역사서 말고도 악기가 실린 시와 소설, 속담을 두루 인용했으며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잠가에 묘사된 악기의 소리도 생생하게 ‘체록’했다. 또한 고분벽화와 토우, 도자기와 공예품에 그려진 악기의 모습 등 온갖 자료들을 아우르고 있다.

## 환경친화적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 악기

송교수는 우리 악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살아 있는 음’을 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도’음을 내더라도 서양악기가 일정한 음을 가진 도의 소리라면, 우리 악기는 울림이 있는 ‘움직이는 도’를 만들어낸다. 국악기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나무, 가죽, 명주실 등 국악기에 사용된 재료를 살펴보면 희귀한 것, 인공적인 재료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다. 한명희는 “이런 ‘식물성

재질’에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적 예술이 탄생했다”고 봤지만, 송교수는 과연 이런 특성들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자연순응적 세계관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재료로 악기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음빛깔을 즐겨왔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송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기를 통해 듣고 싶어했던 음색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맑고 고운 소리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우리 민족은 단단하고, 힘차며, 생동감 있는 ‘야무지고 실한 소리’를 최고로 쳤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거문고의 굽은 줄을 전후로 밀어 놓으면 나오는 잡음과 같은 ‘비음악적인 소음’도 음악적인 영역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국악기의 경우, 서로 다른 악기의 규격이 연주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연주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의 악기를 찾기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길들여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멋스럽게 생긴 악기에서 궁기가 느껴질 만큼 초라한 악기까지, 이 책이 보여주는 우리 악기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인위적 표현을 가능한 자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송교수는 설명한다. 우리 민족의 소박한 심성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국악기라는 것이다. - 최갑수 기자